

참고자료. 2010년 상반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상 최대

- 103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208만톤 감축이뤄 ! -

- 에너지관리공단(이사장 李泰鎔)은 금년 상반기 국내 기업들이 추진한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(KVER Program*)에서 발생한 감축실적(KCERs) 208만톤 중 174만톤에 대해 지난 6월 정부구매를 시행했다.
 - * KVER(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) Program : 국내 자발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말하여 이 사업을 통해 발급되는 크레딧을 KCERs(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)라고 함
 - 금년 상반기 자발적 감축실적(208만톤)은 작년 한 해 자발적 감축실적(270만톤)의 약 80%에 달하는 양으로, 포스코 연간배출량의 약 9%에 해당하는 양이다.

- 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은 산업계가 정부의 '저탄소녹색성장' 기조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,
 - 2007년부터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을 구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.

- 특히, 올해는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 급격히 증가하여 등록·인증 평가회의 개최 횟수를 확대 편성하였으며, 감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
 -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103개 사업에 대해 208만톤을 인증하였고 이 중 87개 사업 174만톤의 감축실적에 대해 정부구매*가 실시되었으며,
 - 상반기 구매단가가 감축실적 톤당 5,196원으로 결정되어, 약 90억원이 조기에 인센티브로 지원되었다.
 - * 정부구매는 제3자 검증을 통해 최종 인증된 감축실적 중 사업자가 정부구매를 신청한 실적에 한해 이루어 짐

-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"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 5년째로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"며,
 - "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"이라고 밝혔다.